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에 안경 지원

시 - 안경사회, 소중한 아이(EYE)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전주시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제때 안경을 쓰지 못해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시 안경사회는 13일 '소중한 아이(EYE)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안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안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중한 아이(EYE) 지원사업'은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의 시력보호를 위해 전주시 안경사회에서 안경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경제작 비용의 일부를 후원하고 전주시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전주시 안경점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안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교정 전 시력이 0.6이하인 드림스타트 아동이며 드림스타트에서 발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희망하는 안경점을 방문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제때 안경을 쓰지 못해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 자주재원 확보... '체납닥터 시즌2' 발족

전주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전문단인 '체납닥터 시즌2'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정리 전문단과 실무단으로 구분해 부서간 징수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관리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지방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닥터는 세외수입 1억원 이상의 체납부서 실무단 30명과 1대1 파트너가 돼 징수 멘토링을 실시한다. 동시에 체납닥터를 통해 현장에서 터득한 징수 노하우를 공유, 부서 현황에 맞는 체납정리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100억원 늘어난 총 2358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으며 체납액도 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채규남 기자



덕진구 · 민간 · 행정 · 학교 합동 청소년 보호캠페인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송천1동 사랑의올타리자원봉사단, 신동초등학교, 덕진경찰서 등 민간, 행정, 학교가 합동으로 12일 신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은 전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전북도청소년상담센터, 덕진경찰서 등 20여 명이 참여해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인한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고자 안내문과 홍보물(불렌, 물티슈, 반창고 등)을 하고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40분 정도 진행했으며 신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했다.

덕진구에서는 그동안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전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덕진구 사랑의올타리자원봉사단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대로변 등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김기영 덕진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하굣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군산시 흥남동 '홍봉이 봉사대', 밀반찬 나눔 실천

군산시 흥남동 '홍봉이 봉사대'는 13일 정성껏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 22세대에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반찬 나눔에는 통장과 부녀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보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밀반찬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식사를 치리기가 어려운 홀몸어르신께 전달했으며,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피며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영섭 흥남동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밀반찬을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남동 홍봉이봉사대 '사랑의 밀반찬 지원사업'은 13년째 매월 추진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 2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영양과 정성이 가득한 반찬을 전달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행복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장수군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장수군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 주관으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기업으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안셀코리아(주), (주)코퍼비오, (주)신진에스엠, 동방제유, 장수수양원, (주)바이오스톤, 농자재백화점 등 7개 업체로 협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과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을 체결한 여성친화일촌기업들에 대해 센터에서는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 기업환경개선지원, 경력단절예비사업 등의 혜택을 우선 지원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시 교월동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지난 12일 통장회의 실시 후 관내 마을 통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앙ERP교육센터의 전문 강사로부터 현대인들에게 예상치 않게 발생 되는 응급 상황 및 처치에 대한 이론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 실습 교육도 병행 실시됐다.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에 대하여 가슴압박만으로 정지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소생시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을 직접 배워봄으로써 '자신의 기적' 폴터이민 안에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주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